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13편

Tag: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
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
심이로다 (시13:1-6)

은덕이란 갚아주시는 복을 말한다. 갚아주시되 아낌없이 후하게 갚아주시는 복을 뜻한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because he has dealt bountifully with me.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냐면, 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쪽 나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현재완료형)

다윗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가 사울의 장녀 메랍을 놓치게 되는 상황, 그러나 메랍의 동생 미갈을 대신 얻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시편 13편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다윗은 원래 메랍과 결혼하기로 했다. 이 약속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메랍은 장녀였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척 하면서도 사실 속내는 약속을 어기려고 하였다.

다윗의 대적들은 (여기에서는 정적을 말한다.)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아마도 빙물과 관계된 말이었을 것이다. 왕의 사위쯤 되려면 빙물은 적어도 얼마는 되어야 한다는 식이었을 것이다.(빙물은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결혼 조건이었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든 공론화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맘이 상했을 것이다.(요즘에서 여론이라는 것은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또 누군가의 입에서는 다윗이 목동이였다는 말이 나돌았을 것이다. 당시에 목동은 천한 신분이었다. 천한 신분으로서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는 말이 나돌았을 것이다.

이런 소문과 함께 사울도 은근히 다윗을 사위로 삼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정말 빙물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든지, 아니면 학식이 뭐 그리 대단하느냐고 말은 해도 은근히 속으로는 그런 소문들을 이용했을 것이다.

다윗은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왕의 사위라면 얼마나 화려한 성취인가? 참으로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개천에서 용난 격이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17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18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

리이가 하였더니

19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삼상18:17-21)

교활한 사울은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을 이용한다. 아마 그는 잘생기고 부자인데다 공부도 많이 한 소위 대단한 ‘금수저’였을 것이다.

이미 메랍의 결혼이 공론화 된 마당이기 때문에 빙물이나 신분이 거론될 때 다윗은 한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신랑감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이때 쯤,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심정이 오늘 시편 말씀에 녹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윗이 메랍과의 화려한 결혼식을 꿈꾸고 있었을 때, 대중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을 때, 젊고 씩씩하고 늙름한 청년의 때, 이제는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부음이 실현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잔뜩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수억대의 빙물 이야기며, 출신 성분 이야기(그의 조상은 이방인 룻이었으며, 또 그는 소실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크다-이런 신상이 털리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들이 다윗을 번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에서 대적은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일 가능성이 크며, 암묵적으로는 사울 왕 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그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왕에게 대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었다.

2절에 보면 당시 다윗이 얼마나 번민하였으며, 정권욕에 썩인 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악담을 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3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의 위기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윗이 기다리는 응답은 아마도 빙물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금전적 응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빙물과 관련해서는 응답이 없었나 보다. 아버지와 형들은 유다 지파를 돌면서 다윗을 왕의 사위 삼기 운동을 벌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즉시 그 열매를 따기는 시기상조였을 것이다. 이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후일에 얻게 하신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뭔가 기발한 지혜를 구했을 것이다. 번득이는 지혜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 관련된 군사작전에 대한 지혜만 주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기 위한 지혜는 주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예비하셨다. 갑자기 미갈이 등장해서 스스로 다윗에게 시집가겠노라고 선포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메랍과 같이 아버지가 훌륭한 신랑감 선정해 줄 터인데 미갈은 그런 것 바라지 않았다. 재산이나 학식이나 집안 보지 않고 청년 다윗만 보았

다. 젊은 여인의 특권이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사람만 보고 그와의 미래만 보는 특권.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돈 없고 신분이 비천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오직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주신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였다. 이때 다윗의 구원은 왕의 사위 자리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갈로 답해 주셨다.

-다윗의 갈망에는 당위성과 영성(기름부음으로 인한 것)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현실성이 약간 부족하다. 왜냐면 주도권이 사울에게 있으며,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쥔 자가 절대권력자 왕이었다. 절대권력자가 싫어하는 자가 그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다윗의 영성이 이 난관극복의 최대 역동적, 적극적 요인이 되었다.

-다윗은 목표 수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는데, 장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후계구도를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다행스럽게 미갈과의 결혼이 뜻밖에 성사되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였다.

-요나단은 숨은 공로자. 비운의 왕자.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마도 오늘 다윗의 시는 미갈의 등장 이전에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멋진 인생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